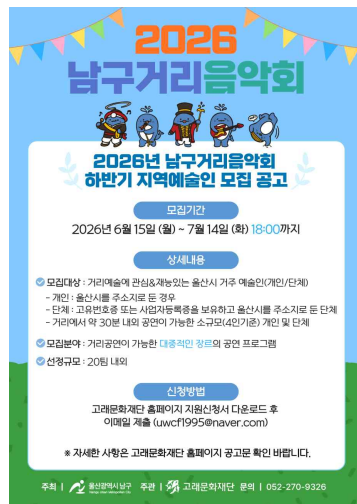


'시민과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바쁜 일상 속 휴식과 같은 감동! 남구의 거리 곳곳이 무대가 된다!

2026년 하반기 남구거리음악회 지역예술인 공개 모집



▲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하반기 지역예술인 공모 포스터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은 지역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넓히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남구 거리음악회' 하반기 지역예술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되는 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펼쳐지는 소규모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거리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예술인(개인 또는 단체)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총 20팀 내외로, 선정된 예술인들은 남구 관내 주요 거리 공간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관내 예술인에게 참여 기회를 집중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접수 기간은 2026년 6월 15일(월)부터 7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울산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예술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남구 관내 주요 거리 공간에서 시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고래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지원 신청서와 4분 이내의 공연 동영상 파일을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행정심의회와 종합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7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거리공연의 특성상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울산의 유능한 예술인들이 남구의 거리를 무대로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과 공모 유의사항은 (재)고래문화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